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<a href="http://www.emerics.org/">http://www.emerics.org/</a> 2018. 10. 25.   중남미	「이슈&트렌드」 <b>브라질 대통령선거 1차 투표 결과 및 전망</b> 작성   김효은 연구원 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구미팀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10월 7일 대통령선거 1차 투표 결과 사회자유당(PSL)의 보우소나루(Jair Bolsonaro) 후보가 1위로 결선 진출
-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후보(46.7%)<sup>1)</sup>가 좌파 성향의 노동자당(PT) 소속 아다지(Fernando Haddad) 후보(28.5%)<sup>2)</sup>를 약 17%p 앞서며 각각 1, 2위를 차지,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결선 투표에 진출함.
  - 보우소나루 후보의 득표율은 근소한 차이(약 4%p)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선거 직전 30%대를 예상한 여론 조사 결과를 크게 상회함.
  - 투표율은 79.67%로 1998년 선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.
  -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과 27개 주의 주지사, 상원 54석(전체 81석의 2/3) 및 하원 513석 전원 등이 선출됨.
  - 사회자유당은 상원에서 4석(기존 0석), 하원에서 52석(기존 8석)을 확보하며 의회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한 반면, 노동자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석, 5석을 상실함. 특히 사회자유당은 하원에서 노동자당(56석)에 이은 제2당으로 급부상함.
  - 주지사의 경우 50%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데, 현재까지 사회자유당 소속 당선자는 없지만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은 14개 주 중 상파울루, 리우데자네이루, 미나스제라이스 등 4개 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됨.
  - 보우소나루 후보는 반 동성애,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인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바 있으나 군부독재 시절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강화함.
  - 군부 출신 및 우파 성향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존 의원들의 재선율은 약 46%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.
- 기존 정치인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에 기여

1) 보우소나루 후보는 군사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군에 복무했으며, 이후 정치에 입문해 1988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90년부터 약 27년간 리우데자네이루 주 하원의원직을 수행함.

2) 아다지 후보는 원래 물라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(부통령 후보)였으나 연방선거법원의 판결 결과 물라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에 대통령 후보로 교체되었으며 물라만큼의 지명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.

-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.
- 경제적으로 브라질은 원자재 붐 시기가 끝난 이후 2015~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최악의 불황에 직면했는데, 이를 노동자당 집권기의 방만한 사회복지 지출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음.
- 중산층 이상의 국민과 기업가들은 보우소나루 후보의 친시장주의 정책을 환영함.
- 사회적으로는 2017년 10만 명당 30.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 증가와 치안 악화가 큰 문제로 대두됨.
- 보우소나루 후보는 공공치안과 법질서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강조하며 총기 소유 관련법을 완화하고 처벌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.

□ 10월 28일 결선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후보의 최종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, 다당제 국회 시스템 하에서 새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지가 관건

- 친시장주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율과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기대가 상승하고 있음.
- 선거 다음날인 10월 8일 보베스파 지수와 헤알화 가치는 각각 4.57%, 1.6% 급등함.
- 주요 개혁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내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.
- 실질적인 개혁 정책 추진 여부는 상원 21개, 하원 30개 정당으로 구성된 차기 브라질 의회에서의 연합전선 구축 역량에 결정될 것임.
- 1차 투표 이후 보우소나루 후보가 중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, 젠더, 총기소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.
- 선거 직전 Datafolh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후보에 대한 반대율도 45%로 매우 높음.

**EMERiCs**

#### 참고자료

Oxford Analytica, Latin AMerica Advisor, BBC, AS/COA 등